



적립식펀드

은행에는 수많은 예금이 있습니다.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어필하는 예금도 있고, 보험 같은 특별부록을 끼워서 고객을 유혹하는 예금도 있습니다.

하지만 이들을 입금방식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

첫 번째는 한 번 돈을 넣고는 영원히 안녕하는 예금입니다. 전문용어로 <u>가치</u>식 예금이라고 합니다. 거치식 예금의 대표 적인 스타는 정기예금입니다. 예를 들어 1억원을 예금하고 1년 동안 절대로 찾지 않는 예금이죠. 그 대신 이자를 팍팍 받 는 예금이 바로 정기예금입니다. 물론 애초의 약속을 어기고 중간에 돈을 찾으러 오면 이자를 아주 조금만 주게 됩니다. 글자 그대로 정해진 기간 동안 돈을 맡기는 게 정기예금입니다.

두 번째는 꾸준히 돈을 넣은 예금입니다. 전문용어로 <u>적립</u>식 예금이라고 합니다. 벽돌을 쌓듯이 차곡차곡 돈을 예금하는 것이 적립식 예금입니다. 우리가 목돈을 만들기 위해 가입하는 적금이 가장 대표적인 적립식 예금입니다.

<u>펜트</u>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세상에는 수많은 펀드가 있지만, 돈을 넣은 방법에 따라 거치식펀드와 적립식펀드로 나눌 수 있습니다.

<u>개치식펀드</u>는 <u>한 번 돈을 맡기면 그걸로 끝입니다</u>. 목<u>돈을 한 번에 맡겨놓고 **펀드매니저**가 굴려주기를 기다리는 것</u>입니다.

<mark>적립식편도는 목돈을 한 번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은행의 적금처럼 푼돈을 조금씩 맡기는 것입니다</mark>. <u>월급날처럼 정해진</u> 날만 입금할 수도 있고, 내키는 날 맘대로 입금할 수도 있습니다. 목돈마련을 준비하는 일반 시민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적립식편도입니다.

하지만 적립식편도는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. 적립식편도는 편도의 이름이 아니라, 돈을 입금하는 방식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. <u>사실 증권회사나 은행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편도는 적립식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</u>. <u>따라</u> 서 적립식이 아닌 편도는 거의 없는 셈이죠.

[과세종류]

- 과세종류(일반과세, 비과세종합저축 등)를 선택합니다.
- 비과세종합저축을 선택하신 경우, 조세록례제한 88-2에 따라 한도조회를 하실 수 있으며, 한도 이내에서 매수할 수 있습니다. 비과세종합저축 안내 자세히 보기
- 코스닥 벤처편드를 선택하신 경우,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투자금액의 10% (최대 300만원) 소득공제 가능합니다. 코스닥 벤처편드 안내 자세히 보기

[납입방법]

- 임의식 : 기간/금액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자유로이 입출금하는 저축방법입니다. (은행의 보통에금 또는 저축에금과 유사한 투자방법) 매수금액만 입력합니다.
- 거치식 : 루자금액 및 기간을 사전에 약정하는 저축방법입니다. 매수금액과 계약기간을 입력합니다. (1회 납입 후 추가입금 불가)
- 자유적립식 : 루자기간만 정하고 금액/횟수 제한 없이 납입하는 방식입니다<mark>.</mark> 매수금액과 계약기간을 입력합니다. (계약 기간 이후에도 추가입금 및 자동이체 설정가능)

갼	임의식	거치식	자유적립식	비고
용어설명	기간/금액을 정하지 않고 자유로이 입출 급하는 저축방법	기간/금액을 사전에 약정하는 저축방 법 (1회 납입 후 추가입금 불가)	계약기간(최소 12개월)을 정하고 금액/횟수 제한 없이 납입하는 방법	
게약기간	Х	O (최소 12개월 이상 지정 가능)	O (최소 12개월 이상 지경 가능)	
추가납입	0	х.	O (일반과세 : 만기 이후 추가납입 가능, 세금우대 : 계약만기 전에 한도 내에서 추가 납입 가능)	매월 일정금액을 자동이체하려 면 자동이체신청 필요 (임의식, 자유적립식 가능)
일부환매	0	0	0	
환매수수료	매수건별 환매수수로 기간을 계산하여 부과	최초 매수일로부터 환애수수료 기간계 산	 만기 전: 매수건별 환매수수료 기간을 계산하여 부과 만기 후: 매수 일자와 관계없이 환매수수료 부과하지 않음 	

· 커트 닷가금액: (닭일의 기타가 : 1000) x જો 살의 작고라수.